

구민들 일상 이야기...광산 변화 이끌다

‘광산자치아고라’ 전동킴보드 논의 제안서 작성 실제 정책 반영 검토

“개성 있는 안전모 착용, 이 제안은 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전하게 규정을 잘 지킨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요?”

지난 8일 광산구청 7층 운상원홀에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전동킴보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광산구민들의 공론장이 펼쳐졌다.

시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선 8기 광주 광산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광산자치아고라’다. 이날 ‘광산자치아고라’는 일상 속 주민 공론장을 통해 모인 1000여 광산구민의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광산구는 올해 광산구 21개 동 주민총회 등을 거쳐 구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의제로 ▲기후위기 대응 ▲반려동물 ▲전동킴보드 등 3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10월부터 주민 공론장 ‘42광산’을 진행했다. 한 의제를 놓고 4명씩 모임을 이뤄 여러 생각을 모아보는 것으로, 총 265팀 1060명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14팀(456명)이 다른 전동킴보드 문제를 대표 의제로 정했다.

전동킴보드 주 사용자인 10~20대(132명)와 더불어 부모 연령대인 40~50대(265명) 참여가 두드러졌다. 광산구 전체 21개 동 중 17개 동에서 전동킴보드를 의제로 다뤘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전동킴보드 관련 민원 건수 중 광산구 지역 민원이 192건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 38세의 ‘젊은 도시’라는 광산구의 특성이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과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광산구는 이날 전동킴보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숙의하는 장으로 자치아고라를 열었으며, 주민,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차 ▲안전 ▲단속 ▲교육 등 4개 주제로 조를 나눠 문제 원인부터 기존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이유, 추가 대안 등을 놓고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지난 8일 광산구청 7층에서 열린 ‘광산자치아고라’에 참여한 시민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테이블마다 시민은 해당 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소주제별 토론 테이블에는 광산구 ‘공론장 코디네이터’, 전문가가 배치돼 효율적 진행을 지원했다.

1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거쳐 각 조는 ‘최종 결론’을 제시했다. ▲러닝머신 안전핀처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킴보드 작동(안전) ▲가입 시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통한 방치 킴보드 문제 해결(주차) 등의 신선한 대안이 눈길을 끌었다.

자녀가 전동킴보드를 이용하다 다친 것을 계기로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은 “안전, 주차 등 각종 교육을 매뉴얼화 해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어린이들까지

폭넓게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킴보드 업체와의 협업 관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완동 주민 김학중씨는 “전동킴보드는 그동안 마을 의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자체, 업체, 시민이 함께하는 협의·협력 관계’를 통해 안전한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치아고라를 통해 모인 시민 의견은 향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제안서로 작성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실제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 공론장에 참여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공론장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그냥 가게?’ 캠페인이 만든 변화 ‘눈길’

광산구 우산동 자원봉사캠프, 애완견 방치 배변 전시회

마을 어린이공원 꽃밭에 방치된 반려동물 배변 문제를 유쾌한 전시와 익살스러운 캠페인 등을 통해 해결한 광산구 우산동 주민들의 ‘마을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우산동캠프(이하 우산동캠프)는 올해 광산구 생활문제해결형 마을실험실 공모사업에 참여,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길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우산동에 있는 ‘자유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아이들이 누군가 치우지 않은 반려견 배변을 밟거나 만지는 문제가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반려인과 주민이 다투거나 갈등을 겪자 우산동캠프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했다.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독 자유어린이공원에 반려동물 배변문제가 심한 이유를 연구하고 조사했다.

이를 통해 우산동캠프가 시도한 것은 다름 아닌 전시회다. 우산동 주민들은 공원 꽃밭에 방치된 반려견 배변에 아광테이프를 두른 투명플라스틱 컵을 덮고, 발견된 날짜를 적은 깃발을 세워 지난 10월 29일부터 ‘꽃밭에 놓인 웬 똥’이란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다. 치우지 않은 배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공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반려인들의 행동과 양심을 움직여보자는 취지였다.

전시회 초반 이전과 달라진 게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그냥 가게?’ 캠페인이다. ‘4컷 만화’처럼 주목도도 높고, 반려인이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배변인식 개선 캠페인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아고, 내 새끼 똥 썼네!’, ‘그냥 가게?’, ‘내 똥 치우는 엄빠가 최고!’, ‘사랑스런 강아지는 머뭇자기도 아름답습니다’ 등 재치 있고, 익살스러운 문구가 적힌 팸플이 공원 곳곳에 세워졌다. 산책하는 반려인의 편의를 위한 배변함

도 설치했다.

얼마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투명플라스틱컵 속에 있던 배설물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 곧 전시됐던 모든 배변이 자취를 감췄다.

더 반가운 것은 전시회 이후부터 자유어린이공원에 배변을 버리고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이 우산동캠프 대표는 “마을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해결해보자고 시작한 우리의 작은 실험이 큰 변화로 이어진 것에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며 “주민이 모이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열심히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꽃밭에 놓인 웬 똥!’ 전시회가 만든 성과는 최근 광산마을주간으로 열린 ‘광산구 생활문제해결형 마을실험실 공유회’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여러 마을실험은 주민들 스스로 작은 아이디어와 실험으로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부심, 보람을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에 힘을 불어넣는 실천적 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대, 전국 2위 ‘베스트 지구대’

올해 112신고 2만여건 처리...공동체 치안 실천

광주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가 2000개가 넘는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2022년 베스트 지구대’에 선발에서 전국 2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21일 광산경찰서(서장 정진관)에 따르면 수완지구대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전국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선발에서 1급지 전국 2위로 선정됐다.

경찰청 ‘베스트 지구대·파출소’는 전국 2033개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치안수요, 검거 등 현장조치,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1회 선발한다.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는 관할면적 9.68km², 관내 인구 12

만 3599만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2만1907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로 근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완지구대는 이 같은 어려운 치안 여건 속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및 검거,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차 거점 및 단속 활동 추진,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치안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정성우 수완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안심맞춤의 치안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2022년 베스트 지구대’에 선발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산구, 마을버스 운영 안정 적극 대응

시와 지원대책 협의...휴업 노선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검토

광주 광산구는 “최근 심각한 운영난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협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산구 관내에서 마을버스 2개 업체가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 속 농촌지역인 평등을 기점으로 도시 외곽지역을 연결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가중되며 버스 운영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버스 업체에선 인건비와 유류비, 시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도 준공영제에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요구 사항이 광주시에 전달됐으며, 광산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수립 용역’을 하고, 2020년 손실액의 70%인 4억4800만

원을 운행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올해 ‘마을버스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해 마을버스에 대한 코로나19 운행손실금 지원을 확정했으며, 2020~2021 운행 손실액 기준에 따라 2억 여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2개 업체 중 A업체만 지원 대상이 되고, B업체는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광산구가 지난해 지원한 2020년 손실액이 광주시의 용역 결과에 ‘수입’으로 반영된 탓이다. 그러자 B업체는 용역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원책 마련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일부 노선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휴업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광산구는 일단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 지급, 대대운행수단 투입 등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지원, 준공영제 등과 관련해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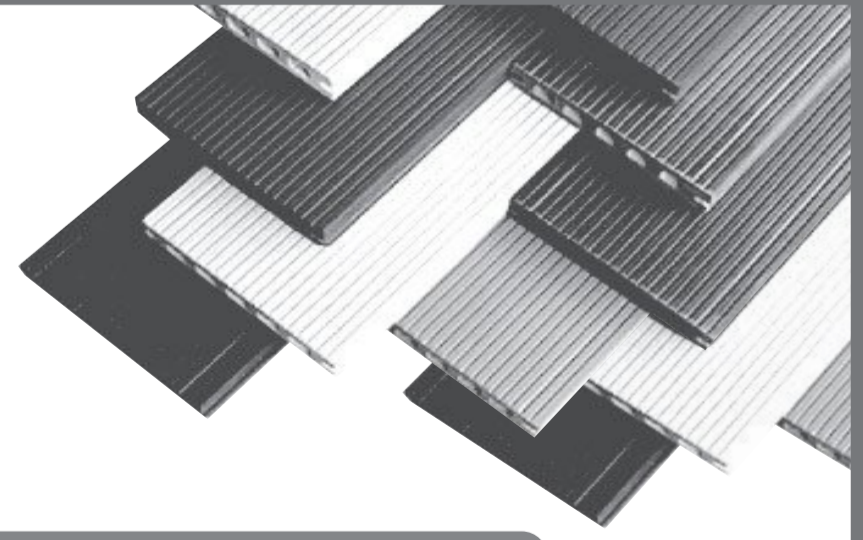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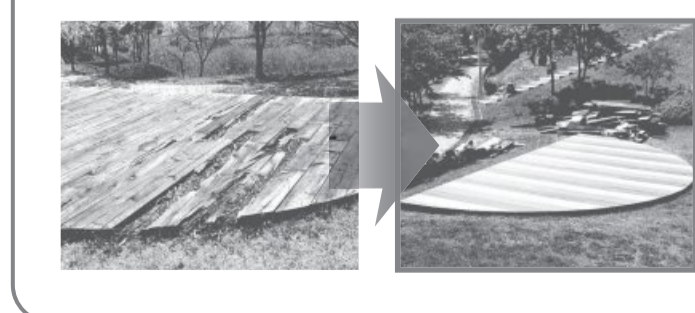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